



2014. 6월 모평 A형

12. <보기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2>에서 고른 것은?

— <보기1> —

<문장>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라’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라’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보기2> —

- 그는 멋쩍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출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14. 6월 모평 A형

13.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 주동문	B :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2014. 6월 모평 A형·B형 공통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014. 6월 모평 A형·B형 공통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별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2014. 6월 모평 B형

1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ㅕ]와 같아진다.
- ‘예, 례’ 이외의 ‘ㅕ’는 [ㅕ]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항상 [ㄴ]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ㅕ]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게’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금괴’를 [금꺠]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혜’를 [지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대]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이예]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2014. 6월 모평 B형

12.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가) | (나)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014. 6월 모평 B형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u>아니요</u>,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의문점	‘아니요’의 ‘요’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p>자료에서 ‘아니요’의 쓰임을 확인한다.</p> <p>☞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요’가 붙어서 된 말이다.</p> <p>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요’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뭘 할까요? •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p>☞ 단어, 어말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요’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p>	<p>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p> <p>☞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p> <p>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나 기쁘<u>오</u>? • 얼마나 기쁘<u>니</u>? • 일단 멈추<u>시오</u>. <p>☞ ㉠</p>
	적용	“그러면 안 되 <u>□</u> .”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2014. 6월 모평 B형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① |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 사슴 > 사슴 | ㄹ장 > 가장 |
| ③ | 흐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 사름 > 사람 | ㄷ리 > 다리 |
| ⑤ |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정답

[14. 6월 모평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정답 11 ㉔

[14. 6월 모평 A형 12번] - 품사

정답 12 ㉓

[14. 6월 모평 A형 13번] - 사동문

정답 13 ㉒

[14. 6월 모평 A형·B형 공통 14번] - 높임법

정답 14 ㉑

[14. 6월 모평 A형·B형 공통 15번] - 단어

정답 15 ㉑

[14. 6월 모평 B형 11번] - 모음의 발음

정답 11 ㉑

[14. 6월 모평 B형 12번] - 정확한 문장 표현

정답 12 ㉓

[14. 6월 모평 B형 13번] - 종결어미의 기능

정답 13 ㉓

[14. 6월 모평 B형 16번] - 모음의 변동

정답 16 ㉒

해설

[14. 6월 모평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정답 11 ㉔

11 - 어휘·어법 (음절 끝소리 규칙) - 【정답 - ㉔】

정답해설 보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정의와 해당 사례를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㉔번은 (3)의 설명과 연관되어, (3)의 답이 ‘ㄱ, ㄷ, ㅂ’이기 때문에 ‘밖→밖, 밑→밑’은 이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오답해설 ①의 ㉑은 (1)의 설명대로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을 나누면 ‘부엌, 옷, 빛, 앞’이 되고,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나누면 ‘간, 달, 섬, 창’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엌’이 추가되어 오답이 된다. ②의 ㉒은 (2)가 ‘음절 끝소리 규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음운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음절 끝에 오는 경우가 된다. ③의 ㉓은 (3)의 설명에 따르면,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는 ‘ㄱ, ㄷ, ㅂ’으로 볼 수 있다.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 ㅎ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대표음화 되기 때문이다. ⑤의 ㉕은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정의에 해당하는 음운을 찾는 문제인데, ‘ㄷ’이 빠졌고, 삭제되어야 하는 ‘ㅅ’이 추가되어 오답이 된다.

[14. 6월 모평 A형 12번] - 품사

정답 12 ㉓

12 - 어휘·어법 (품사) - 【정답 - ㉓】

정답해설 ㉑의 ‘춤’은 뒤에 목적격 조사가 오기 때문에 체언의 자리에 위치한다. 또한, 앞에 ‘현란한’이라는 관형어가 ‘춤’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명사이고, ㉒의 ‘걸음’ 역시 뒤에 주격 조사가 오기 때문에 체언의 자리에 위치한다. 앞에 ‘학생들의’라는 관형어가 ‘걸음’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명사이다.

오답해설 ㉑의 ‘웃음’은 ‘그’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를 명사형 어미 ‘-음’을 붙여 명사처럼 쓰이도록 만들었다. 겹문장으로 나누는 지를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는 멋지게 웃었다+그럼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문장으로 서술 기능이 있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또, ㉒의 ‘그림’은 ‘만화를 잘 그린다’의 서술어인 ‘그린다’를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명사인 것처럼 표현하여 역시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부록

[14. 6월 모평 A형 13번] - 사동문

정답 13 ㉡

13 - 어휘·어법 (사동문) - 【정답 - ㉡】

정답해설 ㉠과 ㉢의 A를 보면, 각각 ‘숨는다’의 나머지 필수 문장 성분은 주어인 ‘동생이’와, ‘낮다’의 나머지 필수 문장 성분은 주어인 ‘실내 온도가’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1자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B를 보면, ‘숨긴다’는 ‘누나가’라는 주어 이외에도 ‘동생들’과 같은 목적어가 필요하다. ‘낮춘다’의 경우도 ‘누나가’라는 주어 이외에 ‘실내 온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여 모두 2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의 A의 주어(동생이)는 C에서 목적어(동생들)로 쓰인 반면, ㉢의 A의 주어(동생이)는 C에서 부사어(동생에게)로 쓰였다. 그러므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 ㉢은 A와 B 모두 출문장이다. ④ ㉠, ㉢은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은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지만, ㉢은 ‘막인다’라는 사동사로 실현된 사동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된다. ⑤ ㉢은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고, ㉡은 A의 서술어가 동사이다. ㉡도 사동문을 모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6월 모평 A형·B형 공통 14번] - 높임법

정답 14 ㉤

14 - 어휘·어법 (높임법) - 【정답 - ㉤】

정답해설 이 문장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시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표현에 해당된다.

오답해설 ① ‘-는구나’는 ‘해라체’에 해당하는 상대 높임이다. ‘해라체’는 격식체 가운데에서도 ‘아주 낮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인 동생을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계시다’는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표현이라고 바꿔야 한다. ③ ‘께’는 부사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객체 높임에 해당된다. ④ ‘께서’는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에 해당된다.

[14. 6월 모평 A형·B형 공통 15번] - 단어

정답 15 ㉠

15 - 어휘·어법 (단어) - 【정답 - ㉠】

정답해설 바라다㉠은 ‘별에 띄거나 악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택지의 ‘종이가 누렇게 바라다’는 정반대의 뜻이기 때문에 해당 용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오답해설 ① 바라다㉠과 바라다㉡은 모두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으니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바라다㉠과 바라다㉢은 ‘~을’과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바라다㉡은 ‘~하기를 바라다’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명령형 문장으로 바꿀 때는 ‘바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④ 바라다㉡의 첫 음절은 [바:-] 표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14. 6월 모평 B형 11번] - 모음의 발음

정답 11 ㉤

11 - 어휘·어법 (모음의 발음) - 【정답 - ㉤】

정답해설 <보기>를 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는 항상 []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는 []로, 조사 ‘-’는 []로 발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자음이 첫소리가 아닌 음절의 ‘-’는 []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의악’을 [충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오답해설 ① 국어의 단모음은 10개를 원칙으로 각각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개’와 ‘께’는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보기>의 규정을 보면 ‘특히 ‘-’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과 같아진 다’라는 설명으로 인해 [금]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두 번째 규정을 보면, ‘예, 례’ 이외의 ‘-’는 []로 발음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인해 [지]계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함을 알 수 있다. ④ 규정에 따르면, ‘-’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비취다’를 [비치]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6월 모평 B형 12번] - 정확한 문장 표현

정답 12 ㉢

12 - 어휘·어법 (정확한 문장 표현) - 【정답 - ㉢】

정답해설 (가)의 수정된 내용은 ‘절대로’이다. 이는 ‘반드시’가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부정문에 어울리는 부사어인 ‘절대로’를 넣은 것으로, ㉠에 해당된다. (나)의 수정된 내용은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된 부분이다. 원래 문장에서 주어가 빠져 의미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으로,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4. 6월 모평 B형 13번] - 종결어미의 기능

정답 13 ㉓

13 - 어휘·어법 (종결어미의 기능) - 【정답 - ㉓】

정답해설 ‘아니오’와 ‘아니오’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탐구 과정을 살펴 보면, ㉓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오’라는 부정의 뜻을 가진 평서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의 어간에 붙는 것은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나’를 통해 알 수 있다. 어간인 ‘기쁘-’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 것은 ‘일단 멈추시오’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사-’라는 선어말 어미에 붙어 문장을 완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오’를 제외하면 ‘기쁘-, 멈추사-’가 되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오’가 종결어미에 오면, ‘하오체’가 되어 격식체 중 예사 높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14. 6월 모평 B형 16번] - 모음의 변천

정답 16 ㉒

16 - 어휘·어법 (모음의 변천) - 【정답 - ㉒】

정답해설 ‘사슴’ 사슴’으로 변한 것은 ‘·’가 ‘ㅡ’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또, ‘마장’ 가장’으로 변한 것은 ‘·’가 ‘ㅏ’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

오답해설 ① ‘마늘 > 마늘’은 ‘·’가 ‘ㅡ’로 변화한 예이지만, ‘흙’ 흙’도 ‘·’가 ‘ㅡ’로 변화한 예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③ ‘하나’ 하나’는 ‘·’가 ‘ㅏ’로 변화한 예, ‘마장’ 가장’도 ‘·’가 ‘ㅏ’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④ ‘사람’ 사람’은 ‘·’가 ‘ㅏ’로 변화한 예, ‘다리’ 다리’는 ‘·’가 ‘ㅣ’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⑤ ‘아들 > 아들’은 ‘·’가 ‘ㅡ’로 변화한 예이지만, ‘다섯’ 다섯’은 ‘·’가 ‘ㅏ’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